

철새 중간 기착지 흑산도에 '새 조각공원'

짐바브웨 '쇼나 새 조각' 310점 배치

8500㎡ 규모... 철새 전시관은 6월 준공

새를 테마로 한 조각공원이 전국에서 최초로 신안에 조성됐다. 신안군은 지난 4일 흑산면 진리에서 박우량 신안군수와 지역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사섬 새조각공원' 준공식을 가졌다.

흑산도 진리 일대는 우리나라를 찾는 518종 가운데 390여종 철새 30여만 마리가 중간에 쉬어가는 기착지이다. 동남아시아나 일본 남부, 호주 등지에 서식하는 새들이 번식하려고 봄에 들어올다가 가을에 나가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흑산도 일대 8500㎡에 들어선 새 조각공원에는 수입한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쇼나(Shona) 새 조각' 310점이 관람로 480m에 배치됐다. 돌담(410m), 휴식·전망공간을 비롯해 동백·배롱나무 등 나무 6000여 그루도 식재됐다. 쇼나조각 구

입설치와 수목식재, 담장쌓기 등에 총사업비 2억4500만원이 투입됐다.

'쇼나'는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짐바브웨 인구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부족의 이름이다. 정과 망치, 샌드 페이퍼 등 전통적인 도구를 사용해 만드는 이들의 작품은 돌의 본성에 대한 영적 접근을 통해 아프리카 토착문화의 역동적 생명력을 표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앞으로 공원에 종합안내소를 '새 인형 전시관'으로 리모델링 한 후 세계 각국의 새 인형을 수집, 전시할 계획이다.

인근에 건축 중인 '철새 전시관'도 오는 6월 준공예정이다.

박우량 군수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기암 괴석 등 다양한 생태자원을 보유한 전국제일의 해상관광지인 흑산도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인 흑산도에 새를 테마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게 됐다"며 "자연친화적인 관광자원 기반확대로 흑산을 찾는 관광객 증가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맹금류 조각상.



지난 4일 신안군 흑산면 진리에 새를 테마로 한 조각공원이 문을 열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쇼나 새 조각' 310점이 관람로 480m에 배치됐다.

"수도권 열차 관광객 4000명 유치"

나주시, 코레일과 특별 열차 운행 협약

25일 흥어축제 첫 운행

나주시가 나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특별 관광열차를 운행한다.

나주시는 최근 코레일 광주본부(본부장 윤중환), 여행광방(대표 강호선)과 수도권 특별 관광열차 운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시와 코레일은 철도와 연계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수도권 특별 관광열차의 첫 운행일정을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영산포 흥어축제에 수도권 관광객 4000명을 모집해 무박

2일 동안 흥어축제와 관광지 답사, 황포돛대 및 천연염색 체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주시 김관영 문화체육관광 과장은 "코레일 측과 지속적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해 올해 10회에 걸쳐 총 4000명의 수도권 열차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라며 "영화와 와인을 결합한 '와인&시네마 열차'를 1박2일 코스로 5월에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주=정철현·손영철기자 yjson@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왕인축제 성료 ... 110만명 다녀가

영암군 군서면 일대 100리 벚꽃길에서 열린 '영암 왕인문화축제' (4월 4~7일)에서 군민창작 거리극 '왕인박사 일본 기모'가 펼쳐지고 있다. 영암군은 이번 축제에 비롯여행과 체험을 즐기려는 관광객과 주민 등 110만명이 찾아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밝혔다.

영암군 군서면 일대 100리 벚꽃길에서 열린 '영암 왕인문화축제' (4월 4~7일)에서 군민창작 거리극 '왕인박사 일본 기모'가 펼쳐지고 있다. 영암군은 이번 축제에 비롯여행과 체험을 즐기려는 관광객과 주민 등 110만명이 찾아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밝혔다.

영암군 제공

강진아트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강진아트홀은 청소년들이 학교밖 문화예술공간에서 건전하게 토요 여가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예술감상 프로그램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한다.

오는 12일부터 시작해 총16회 진행되는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는 초·중·고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문예회관, 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미디어센터 등을 찾아가 공연, 영화, 전시 작품을 감상하는 감상교

육 프로그램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전국 80여개 문예회관에서 진행하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인원은 40명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과 가족은 강진아트홀 매표소에 참가 신청서와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면 행사를 거쳐 참가할 수 있다. 문의 (061-430-3973)

강진=남철희기자 chou@

한방 아토피 질환 예방교실 호응

해남군 보건소

해남군 보건소가 올해 처음으로 한방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 교실을 운영해 호응을 받고 있다.

군 보건소는 환경오염과 식생활 변화, 면역기능 저하에 따른 아토피와 천식, 피부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치료를 위해 관내 3개 유치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방 면역기능 관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오는 4월15일까지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식이요법·운동으로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기공 체조와 천연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아이들의 흥미를 유도하

고 있다.

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아토피 질환 바로알기 책자'를 통해 색칠하기와 스티커 붙이기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군 보건소는 앞으로도 알레르기 원인물질을 제거하고 신체의 해독작용을 통한 한의학적 접근방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유지 향상 시켜 나갈 계획이다.

해남군 보건소 관계자는 "아토피는 주로 유아기부터 시작되는 만성적이고 재발성 질환으로, 어릴적부터 올바른 식습관과 예방수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선진 농업 생산기반 기술 배운다

라오스 농림부 차관

영산강 사업현장 방문

라오스 캄페드 농림부 차관이 지난 5일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현장을 방문했다.

사진

라오스 농림부 차관은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 기술력을 라오스 농업분야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에서 추진중인 영산강 대단위 농업개발사업과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의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봤다.

영산강 구조개선 2공구 산이 배수갑문은 대한 토목학회가 '올해의 우수 토목구조물'로 선정된 바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 사업단 관계자는 "태국을 비롯해 미얀마, 베트남 고위 농업관계자들이 사업현장을 방문하고 있어 우리나라 농업분야의 우수한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려 기술력 수출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www.guemyong.co.kr

이웃 갈등 원인 해결!!
충간소음 방지 바닥재
오리지널 영국 제품
인스타레이

국내최초
경량,중량
충격음
기준통과

충간소음 전용 바닥재 **InstaLay**

주택시공기준	경량충격음 58dB이하 중량충격음 50dB이하
수인한도기준	주간 40dB이하 야간 35dB이하

뛰어난 열전도성,충간 중량 충격음 방지,다양한 바닥재 연출, 알맞은 쿠션기능으로 피로방지 및 내구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개념의 신기술 - 바닥재 시스템

NAVER 충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바닥재

전국 시,군,구지역 대리점 모집
문의전화 062-575-9082

즉석요리 무한리필
OPEN 30년 전통돈까스
SALAD & PASTA COOK

Since 1983 **유생장**

유·스퀘어점

유생장 무한리필
돈까스

성인	10,900
초등학생	7,000
소인(미취학)	4,000
음료	무한리필 (콜라, 사이다, 워터, 주스)

프리미엄 최상급 양념치킨
· 풍부한 육질
· 부드러운 식감
· 올일종이소스와 지영 허브 육성
· 최첨단 부근해 신선한 재료

즉석요리
얼리지않는 생돈까스
30년의 노하우

샐러드 & 돈까스
스파게티, 탕수육, 미트볼
제육볶음, 치킨, 생선까스

유·스퀘어점 ☎ 062)671-1199
유·스퀘어_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구.아이엘리시아)